

# EBS 투데이 (2015.9.29.)

010-9766-5262

(앞으로 자료 배부, 자료 안의 질문은  
문자와 카톡으로 통일합니다.)

## PART1. 수특

### <B8. 정보 통신 기술>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21세기 사회를 지식 정보 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경제 활동에서도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여 흔히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사이버 공간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 '스마트 공간' 등의 용어를 출현시켰다. 이러한 용어의 출현은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경제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대량 생산 체제가 유연적 생산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던 기업들이 첨단 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규모 공장도 전문화하여 타 기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혁신적 기업이 정신과 새로운 기업 모형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벤처 기업이 많이 등장하였다. 셋째는 기술 혁신에서 상호 작용이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기술 혁신이 대기업 연구소 혹은 국가 기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연구와 생산은 별개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 혁신에서 상호 작용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한 끊임없는 상호 작용, 생산 기능과 연구 기능의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 기업과 대학 및 공공 기관의 상호 협력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가 진전되고 정보의 유통이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 결코 지역이나 장소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간과 거리를 극복하는 인터넷의 발달은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실제 사회에서 장소나 지역의 중요성을 소멸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이버 공간이 무작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되며,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의 흐름이 자유롭더라도 물자의 생산과 분배는 실제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장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 기반 경제에서 인터넷의 이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기 어려운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식 중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문자화될 수 있고 전달이 쉬워진 것이 있는가 하면 쉽게 문자화될 수 없고 전달이 쉽지 않은 것도 있다. 문자화와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한 전달이 쉽지 않은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의 기초가 된다. 실제로 기술 혁신은 이 두 가지 지식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 거리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혁신은 공동 학습을 통한 지식 교환이 원활한 특정 지역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리콘 벨리와 같이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이 이

루어지는 지역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새로운 용어의 출현은 사회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o,x)
2. 지식 정보 사회는 정보 통신의 기술적 발달을 방해하였다.(o,x)
3. 지식 정보 사회로 다가가면서 아이디어가 사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o,x)
4. 지식 정보 사회는 전문화, 소품종 대량 생산, 기업 간 학제 간 상호 연구를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o,x)
5. 필자에 따르면 지식 정보 사회가 지속된다면 사이버 공간의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실제의 지역(오프라인)은 그 중요성이 사라질 것이다.(o,x)
6. 실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자의 생산과 분배가 없다면 지식 정보 사회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o,x)
7.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기초가 되며 이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o,x)

### <B9. 우주 먼지 분석>

[01~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에는 날마다 수백 톤이 넘는 우주 먼지가 떨어지고 있다. 소행성에서 부서져 나왔거나 혜성이 남기고 간 먼지에는 그보다 작은 크기의 수많은 먼지 입자가 들러붙어 있다. 이렇게 작은 먼지 입자에는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존재한 여러 가지 물질이 담겨 있어서 오래전 우주의 비밀을 밝혀 줄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우주 먼지의 입자를 분석하여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우주 먼지를 분석하여 먼지의 태생을 밝히는 데에서 시작된다.

먼지의 태생을 확정하는 일은 증거를 얼마나 상세하게 수집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선 먼지의 겉모습부터 따져 볼 수 있다. ㉠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는 단단한 바위 조각과 흡사하고, ㉡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는 회색의 팝콘 조각처럼 생겼다. 먼지 입자가 소행성처럼 큰 천체로 뭉쳐질 때 열, 충격 혹은 이따금씩 작용하는 물로 인해 밀도가 높은 바위나 금속으로 압축된다. 혜성의 먼지 입자는 가열되거나 압축된 적이 전혀 없이 얼음으로 다소 느슨하게 결합될 뿐이다. 그래서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에는 얼음이 들어차 있던 바람구멍이 여기저기에 나 있다.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하는 속력으로 먼지를 구분할 수도 있다. 혜성은 태양 주변으로 빠르게 돌진하기 때문에 혜성이 뿌린 먼지는 보통 시속 7만 km가 넘는 속력으로 지구를 향해 접근한다. 반면 소행성은 지구와 거의 비슷한 속력과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 조각은 보통 시속 5만 km 정도의 속력으로 지구를 향해 접근한다. 먼지 중에서 은하계를 외로이 떠도는 원시의 우주 먼지가 지구를 향해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

소행성의 먼지, 혜성의 먼지, 원시의 우주 먼지가 모두 같은 각도로 대기권에 부딪혔다면 빠른 속력으로 돌진하는 원시의 우주 먼지가 가장 뜨거워질 테고 소행성 먼지가 가장 차가운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먼지가 대기권에 부딪칠 때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알면 먼지의 진입 속력을 알 수 있다. 현미경으로 먼지를 들여다보면 태양의 플레어\*로 인해 생긴 열은 상처가 있다. 이것은 먼지의 일부가 태양에 의해 우주로 밀려난 흔적이다. 만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아주 빠른 속력으로 날아온 먼지일 것이다. 대기권에 부딪치는 순간 온도가 1,000°C까지 올라가 흔적이 녹아 사라진 것이다. 먼지를 오븐에 넣고 가열한 뒤 다양한 화학 성분이 증발하는 온도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가령 900°C까지 가열되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먼지라면 901°C까지는 가

열해야 증발이 일어날 것이다. 먼지의 성분이 증발하는 온도가 확정되면 능숙한 먼지학자는 그것을 이용해 먼지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다.

화학적 분석을 통해 먼지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먼지의 구성 성분이 어느 운석의 화학 성분과 비슷하다면 태양계의 같은 지역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구의 평균적인 구성 성분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그 먼지는 원시 태양계의 아주 특이한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먼지를 분석한 다음에 먼지를 특정한 혜성이나 소행성에 연관 지어 분석해 보는 것이다. 혜성이나 소행성과 같이 큰 천체를 손에 넣어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거기서 떨어져 나온 먼지를 입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플레어 : 태양의 광구(光球)와 상층 대기인 코로나 사이의 대기층에 있는 물질이 급격히 분출하면서 수 초에서 수 시간에 걸쳐 섬광을 내 놓다가 소멸하는 현상.

1. 우주 먼지를 분석하는 이유는 환경 오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O,X)
2. 가열과 압축, 수분과의 결합은 먼지 입자의 밀도를 느슨하게 한다.(O,X)
3. 먼지의 결합이 느슨한 정도는 먼지의 겉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O,X)
4. 혜성의 먼지는 결합력이 강하고, 속력 역시 빠르다.(O,X)
5. 혜성이 뿌린 먼지는 지구의 속력보다 더 느리게 지구로 접근한다.(O,X)
6. 속력의 정도는 먼지의 온도와 상관이 없다.(O,X)
7. 빠른 속력으로 날아온 먼지일수록 플레어로 인한 상처의 정도가 크다.(O,X)
8. 온도가 높을수록 먼지 내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의 양은 많을 수밖에 없다.(O,X)
9. 먼지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O,X)

## <B10. 윤리적 이기주의>

[01~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하거나 빚을 지면 약속을 지키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의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의무도 역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컨대 한 달 만 원의 기부로 아프리카의 굶어 죽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처럼,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 될 경우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타인에 대해 가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부르는 사상은 각 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일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이기주의는 개인의 유일한 의무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급진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의 뿌리 깊은 도덕적 신념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일단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인 심리적 이기주의와 헛갈리지 말아야 한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람들은 실제로 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반면 규범적 이론인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자신에게 최선인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무라고 말한다.

한편 윤리적 이기주의가 자신의 이익에 따른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행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기적’이라고 간주하는 행위는 타인의 복지를 무시한 채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자기 이익에 따라 행위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적으로 행위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창조적 재능을 계발하는 행위나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 행위는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것이지만 타인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면서 타인을 돕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타인을 돕는 일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효과적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옳은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윤리적 이기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론은 일반성을 결여하며 결코 일반적인 윤리학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 윤리적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논증들이 있다. 첫째 논증은 우리는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괜히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가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 또 타인을 돌보고자 하는 행동이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타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행위를 하고 싶다면 이타적이라고 불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을 통해 얻어 낸 결과는 결코 윤리적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논증은 특정 행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비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윤리적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둘째 논증은 이타주의를 폄하하는 방식을 쓴다. 이 논증에 따르면, 이타주의 윤리학은 개인의 삶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간 개인의 가치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윤리적 이기주의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므로 윤리적 이기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논증의 문제점은 우리에게 이타주의 윤리학과 이기주의 윤리학의 단지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가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상식적 관점은 두 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 즉 개인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경우도 있고,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셋째 논증은 상식적인 도덕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쓴다. 일상적인 도덕 항목 중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나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의무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이라는 근본 원리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은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만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언제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어떤 때는 타인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 가지 논증은 윤리적 이기주의를 옹호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급진적인 관점은 윤리적 이기주의와는 달리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의무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o,x)
2. 윤리학에서, 의무의 대상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o,x)
3.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를 가르는 기준은 의무의 대상이 자신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이다.(o,x)
4.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윤리적 이기주의는 필연적으로 타인들에게 손해를 주게 된다.(O,X)
5.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윤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 행위와 모순된다.(O,X)
6. 윤리적 이기주의자는 타인을 돕는 일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

- 더라도 타인을 도울 수도 있으며 그것이 옳다고 말할 것이다.(O,X)
7. 필자는 윤리학이란 일반적을 배제하고 고유성과 특수성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O,X)
8. 타인의 이익을 위하다가 그 의도와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사례는 윤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반론이 될 수 있다.(O,X)
9. 위 글에서 제기된 윤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첫 번째의 논증의 문제점은 이타적이라고 불리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비이기적이기 때문이다.(O,X)
10. 윤리적 이기주의를 옹호하는 둘째 논증의 문제점은 인간 개인의 가치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O,X)
11.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사고가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온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면 윤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이 될 수 있다(O,X)
12. 남을 위한 이타적 의도로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윤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논증을 옹호하는 사례이다(O,X)

## <B11. 공화주의>

로마의 공화주의는 로마의 오랜 전통인 도덕적 엄격함과 그리스 전통인 기품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생긴 제도이다. 공화국은 황제와 제국 시스템과 더불어 로마가 세계에 남긴 정치적 유산이 되었다. 12세기 이후 모든 공화국, 중세와 근대의 모든 황제와 제국 시스템은 로마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주의는 현대까지 유효한 정치사상이다. 현재 세계의 일반적 추세를 보면, 국민 주권, 민주주의, 법치 국가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정당들도 정치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공화주의의 가치를 따르고 있다. 공화주의는 공동체 관련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참여, 자유, 의무, 연대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민의 덕성에 기초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공화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무보다 도덕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 지상주의와 구분된다.

현대의 공화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개인들을 통합하는 데 있다.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와 참여를 통해 시민들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을 국가적 법질서에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보지만, 개인의 사적 영역이 보호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존재로도 본다. 공화주의 관점에서 개인은 공동체의 사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연대감을 발휘하며 이성을 사용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의 사회적·도덕적 능력을 신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현대의 공화주의는 법치, 공동체의 안녕과 통합, 시민의 덕성, 자유의 보장 등의 핵심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정치 철학적으로 어느 가치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르는 신아테네적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키케로의 전통을 따르는 신로마적 입장이다. 신아테네적 입장을 고수하는 대표 학자는 마이클 샌델이며, 그는 좋은 삶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에 기초하여 인간은 오직 자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동물로서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시민의 덕성에 기초한 강한 시민적 공화주의를 주장한다. 신로마적 입장을 고수하는 대표 학자는 필립 페팃이며, 그는 법의 지배와 리베르타스(libertas)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 즉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 이해한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리주의, 자유 지상주의 등을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을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으며,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타인의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란 좋은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하게 만드는 것이며, 정치의 목적은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는 시민의 덕성을 키워 주는 데 있다. 나아가 그러한 시민의 덕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실천으로 터득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서 공화주의를 고민하는 마이클 샌델과 다르게, 신로마적 입장을 취하는 필립 페팃은 로마 공화정이 추구했던 ‘리베르타스’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실제로 지니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지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통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외부적 통제는 직접적인 간섭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바로 간섭하는 사람을 감독하고 교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란 사회적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받고, 그러한 외부적 통제를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법에 의해 통제받지 않은 자의적 권력이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더라도 시민의 정치적 자유는 훼손될 수 있다. 권력을 지닌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시민의 자유에 자의적으로 간섭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체에서 시민의 자유는 자의적 권력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고 자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법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법에 복종하면 일정 부분 자유가 제한되지만 자율적 의사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1. 로마의 공화주의는 로마와 그리스의 전통이 결합된 제도이다.(O,X)
2. 공화주의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에서 철저히 벗어나 시민의 덕성에 기초하여 형성된다.(O,X)
3. 현대 공화주의에서 인간은, 국가적 법질서에 독립적인 개인의 사적 영역만을 추구하는 존재이다.(O,X)
4. 직접 민주주의는 공화주의와는 달리 시민의 덕성을 신뢰한다.(O,X)
5. 인간이 정치적 동물로서의 본성을 실현하려면 자치 공동체에 대한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신아테네적 입장이다.(O,X)
6. 샌델이 추구하는 사회는 최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적 사회이다.(O,X)
7. 샌델에 의하면,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덕성을 통해 선택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이다.(O,X)
8. 우리의 선택지에 영향을 주는 통제의 양상은 언제나 직접적 간섭을 동반한다.(O,X)
9. 삭제
10. 리베르타스를 추구하는 사람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을 추구할 것이다.(O,X)
11. 샌델은 페팃의 입장이 공동선을 과도하게 강조하였다며 그의 주장을 배격할 확률이 높다.(O,X)
12.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윤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반박한다.(O,X)
13. 일정 부분의 자유라도 제한당한다면 그것은 어떤 테두리 안의 제약이라 할지라도 페팃의 공화주의가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O,X)

**B8. 정보통신 기술**

o, x, o, x, x

o, o

**B9. 우주 먼지**

x, x, x, x, x

x, x, x, o

**B10. 윤리적 이기주의**

x, o, x, x, x

x, x, x, o, x

x, x

**B11. 공화주의**

o, x, x, x, o

x, x, x, 삭제, x

x, x, x